

한국인의 보람있는 삶을 위하여(5)

보람 있는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하여

—韓國精神文化研究院提供—

本稿는 선진국가를 指向하는 現代社會속에서 우리가 살고있는 社會의 實狀을 投影하여 文化國民으로서 지녀야할 姿勢를 摸索하고자 揭戰하는 바이다.

앞으로 本欄을 통해 主人精神·名譽心·道德心과 더불어 국민 主体意識을 考察하고 協同精神·使命感·準法精神을 살피봄으로써 協同社會의 意味를 되새겨 보며, 愛國心과 反共精神 그리고 統一意志를 照明해 봄으로써 先進祖國의 文化國民의 姿勢를 다짐해 보고 자 한다. 編輯者註

이러한 경향은 교육의 영역에 있어서도 찾아볼 수 있는 공통된 병리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교육이 가장 효과적이고 유일한 사회 계층의 상승, 즉 출세의 수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한국의 부모들은 조상 전래의 전답을 팔고 빚을 내서라도 그 자녀들을 상급 학교, 그 중에서도 일류 명문대학에 보내려고 애써왔다. 어린 청소년들은 어떻게 하면 지·덕·체가 고루 발달된 균형잡힌 국민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을 두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점수를 많이 따서 좋은 상급학교에 입학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만 몰두하여, 냉혹한 경쟁 심리의 노예가 되어 가고 있다. 물론, 선의의 경쟁은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으며 그동안 이룩한 한국 사회의 급격한 성장은 그러한 교육의 힘에 의한 바가 큰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최근 20~30년간 한국 교육이 양산해 낸 것은 균형을 잃은 인간들이었다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한편 문화의 영역에서 이룩된 갖가지 고무적인 현상의 그 화려한 조명 뒤에도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게 하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음을 외면할 수 없다. 문화 수용의 내용과 폭이 크게 넓혀지고 대중화되었지만, 그 댓가로 중후하고 토착적인 전통문화 대신 감각적이고 상업주의적인 경박한 문화가 판을 치게 된 것이다. 오늘의 한국 사회를 휩쓸고 있는 대중 문화는 정신적 희열을 가져다 주기보다는 관능적 말초 신경이나 만족시키는 저질화 경향을 띠고 있다.

우리 국민은 최근 수 십년 동안 국민 생활의 전 영역에 걸쳐 급속한 발전을 성취하였지만, 그 이면에는 삶의 보람보다는 오히려 좌절과 실망을 안겨다 주는 많은 사회적 병리 현상이 함께 하고 있다.

절대 군주나 양반 계급 또는 소수 권력층들의 권세와 위압에 짓눌려 무조건 굽신굽신해야

했던 봉건주의적 질서를 타파하고 나선 한국 국민은 이제 누구 앞에서도 당당히 자기를 주장할 수 있는 민주 국민이 되었지만, 그 대신 많은 사람들은 돈과 물질 또는 새로운 사회적 지위의 노예가 되어, 그러한 것들의 획득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만큼 주체의식을 잃은 이기적이고 타산적인 인간이 되어가고 있다.

절대 빈곤이 사라지고, 생활의 편리가 증대되어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여유있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경제단위가 국경을 넘어 세계로 뻗어남에 따라, 한국 국민은 어깨를 펴고 세계 각국을 누빌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국민들 사이에는 그럴수록 채워도 또 채워도 충족시킬 수 없는 새로운 욕망이 실재없이 일어나, 이로 인한 갈등을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벼락부자가 된 소수의 사람들은 보라는 듯이 사치와 낭비를 일삼아, 그렇지 않아도 욕구불만에 쌓여 있는 대다수 이웃 사람들에게 심한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대도시일수록 자기를 알려주고 정다운 인사말 한 마디라도 전배출 줄 아는 이웃을 찾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은 고슴도치처럼 몸을 움츠린채 쫓겨다니는 듯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매일 매일의 통근 길에서 쉽게 볼 수 있는바와 같이 우리 사회는 어린이나 노약자들에 대한 배려 같은 것은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구호로만 그치는 느낌을 금치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돈과 출세를 위해서는 어떤 수단 방법도 가리지 않아야 하며,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어떠한 비열한 수단도 가릴 것이 없다는 생각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이렇게 하여 무디어진 우리 사회의 도덕 관념은 작게는 문명 국가로 부끄러울 정도의 교통사고율을 기록하게 하고, 크게는 사회의 기강을 흐리게 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이같은 부조리 현상은 지식층 인사들이라고 해서 결코 예외는 아니다. 입으로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자기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의 견해는 아예 무시해 버리고, 자기의 주장만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 자기와 뜻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음으로 양으로 매장하기 위해 온갖 수법을 동원하기도 한다. 학교에서도 원만한 인격과 정서의 도야라든지, 남들과 협동해서 무엇인가를 창조해 보려는 기풍보다는 상급학교에 입학하는 데 중요한 국어, 영어, 수학 등 도구 과목의 점수를 더 많이 따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다.

예술과 문화 창조에 앞장서야 할 문화인들도 상업주의에 영합하여, 우리 민족의 정신적 회열과는 거리가 먼 외국의 소비 문화를 모방하는 데만 급급하게 되었다. 최근에 이르러 한국 문화의 양상은 점차 국적 불명의 감각적 소비 문화로 치닫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다.

이 모든 명암상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짐작하게 해주는 몇 가지 실체들이지만, 특히 우리 사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각종 병리 현상들은 지난 20~30년 동안 우리가 겪어 온 급격한 사회 변화때문에 불가피한 것들이었다는 것을 일단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보다 앞서 고도 산업 사회를 이룩한 선진 국가들은 지난 100여년간이란 비교적 긴 세월을 두고 이러한 병리 현상들을 치유하기 위해 그들 특유의 전통적 윤리 정신을 고취시키고 국민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여 그들 나름의 복지 사회를 건설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러므로 좀더 보람 있는 삶, 좀더 건강한 복지국가를 회구하는 오늘의 한국인으로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에 대하여 살펴 본 반성을 토대로, 선진국들이 지난 100여년에 걸쳐 이룬 정도의 복지사회, 나아가서 이보다도 더 훌륭한 복지사회를 건설하는 일을 짧은 기간 내에 성취해야 한다.

투철한 주인의식을 갖춘 국민, 명예심과 도덕심을 함께 지닌 국민, 공익을 위한 협동 정신과 자신의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는 국민, 나라가 정한 법질서에 순응할 줄 아는 준